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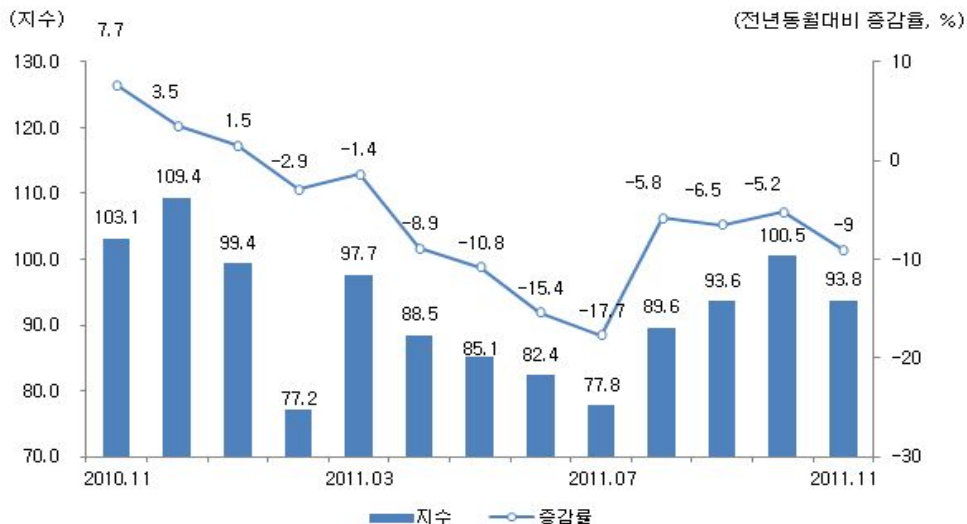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백화점 판매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11월 백화점 정기바겐세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주요 판매 상품으로는 패션용품(44.4%), 식품(27.0%), 생활용품(17.3%) 순으로 나타나 백화점 판매액 증가의 주요 영향 품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p> <p>그러나 최근 1년간 전반적인 소비추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비심리에 경기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11월 서울의 고용동향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관련 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령층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표별로는 고용률, 실업률 역시 호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그러나 전국과 서울을 비교한 경우 전국과 다소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시장의 호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p>
물가	<p>1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로 상승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으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석유류(15.8%p)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기·수도·가스(8.6%p), 집세(5.5%p) 등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지역별로는 전도시의 물가 지수가 104.8로 서울(104.6)에 비해 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전세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는 매매가격의 하락세, 전세가격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주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의 상승은 전월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및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 생 · 산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감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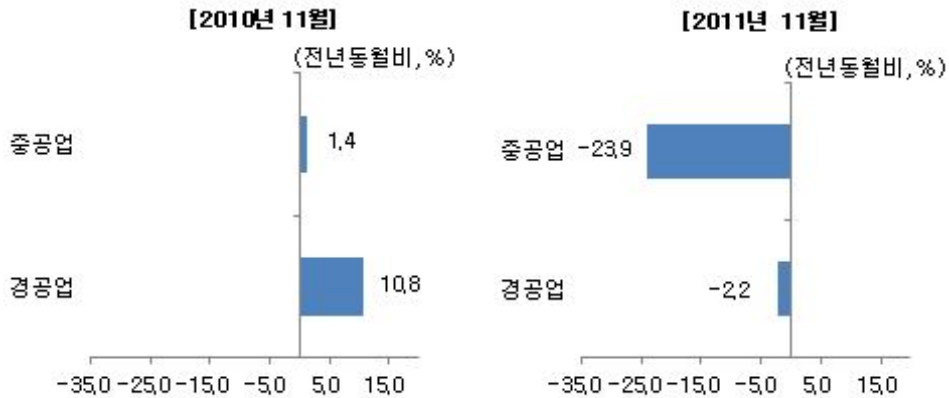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는 93.8(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1%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3.9%,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16.0%)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29.8%), 종이제품(86.4%), 전기장비(29.3%) 등에서 감소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전월대비로는 0.4%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7.8%), 기계장비(-5.0%)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1.7%), 자동차(14.4%)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5.6%), 협회·수리·개인(-0.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5.2%) 등 2.6% 증가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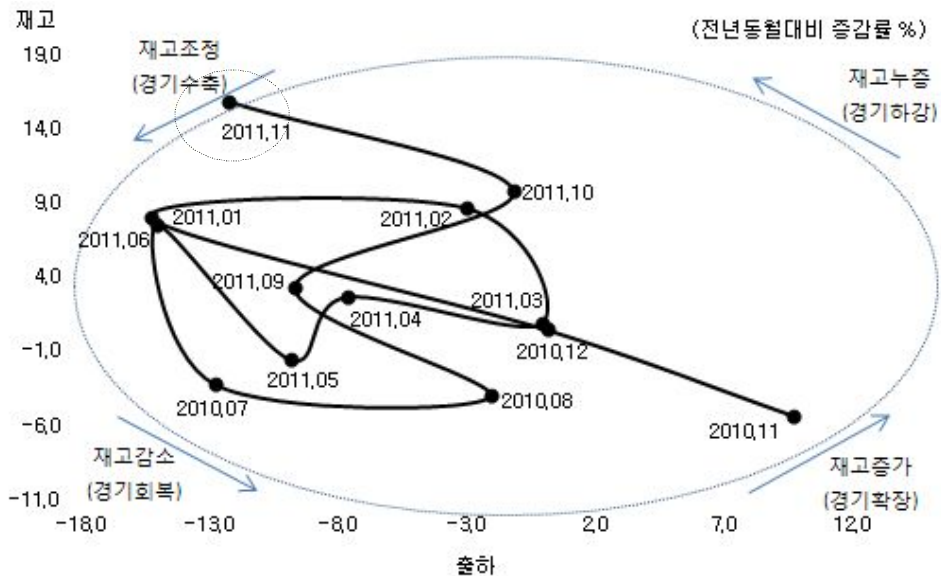
서울의 11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의 11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및 재고 증가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91.6(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가죽 및 신발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종이제품,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968억원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2.4%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말, 연시로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으나 감소품은 다소 축소

■ 서울의 11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44.4%)이며, 식품(27.0%), 생활용품(17.3%)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9%인 6천963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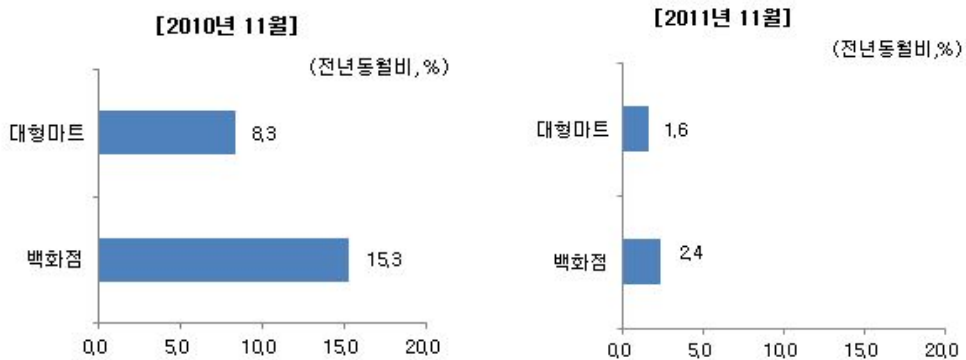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대형마트는 0.3%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5.8%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2.4% 감소,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2%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15세 이상 인구는 8,3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0.3%)이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5,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0.6%)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1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천명(-1.8%)이 감소

■ 전국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1월 15세이상인구는 4,12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2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3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2천명(1.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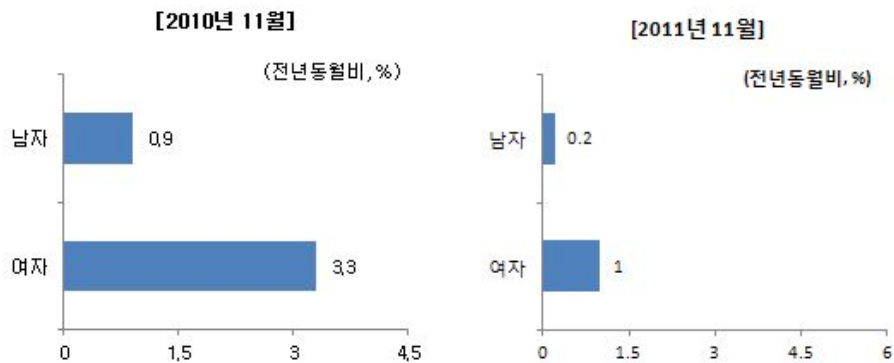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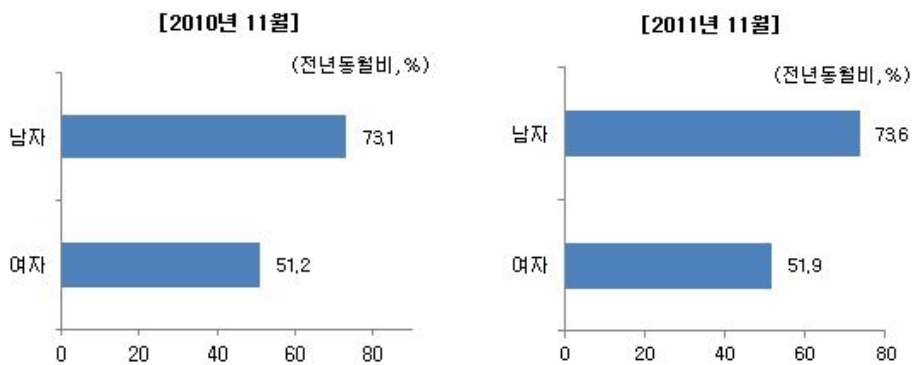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83천명, 여자는 2,2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 여자는 1.2% 각각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6%, 여자는 51.9%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4%p, 여자는 0.2%p로 각각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0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0.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0천명, 여자는 2,1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6천명(1.3%), 여자는 1천명(0.1%)이 각각 증가
- 서울과(0.7%) 전국(2.0%)의 취업자 수는 0.3%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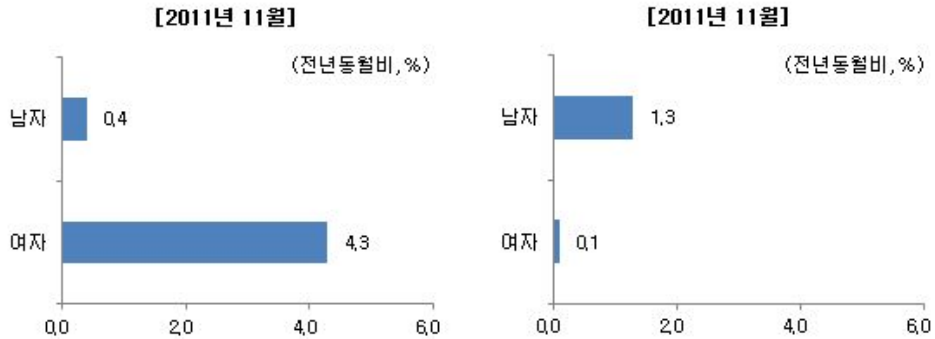
■ 전국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취업자는 2,458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9천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8천명(1.9%) 증가하였고, 여자는 1,024만8천명으로 21만1천명(2.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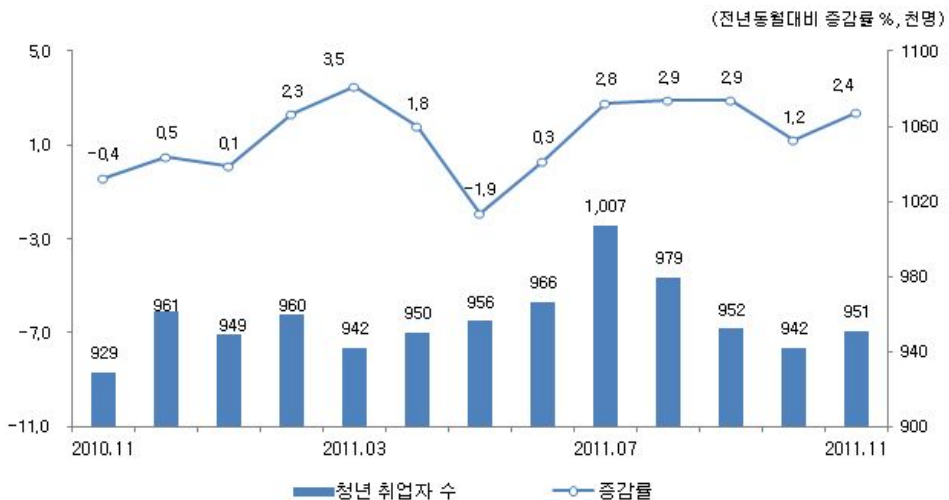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을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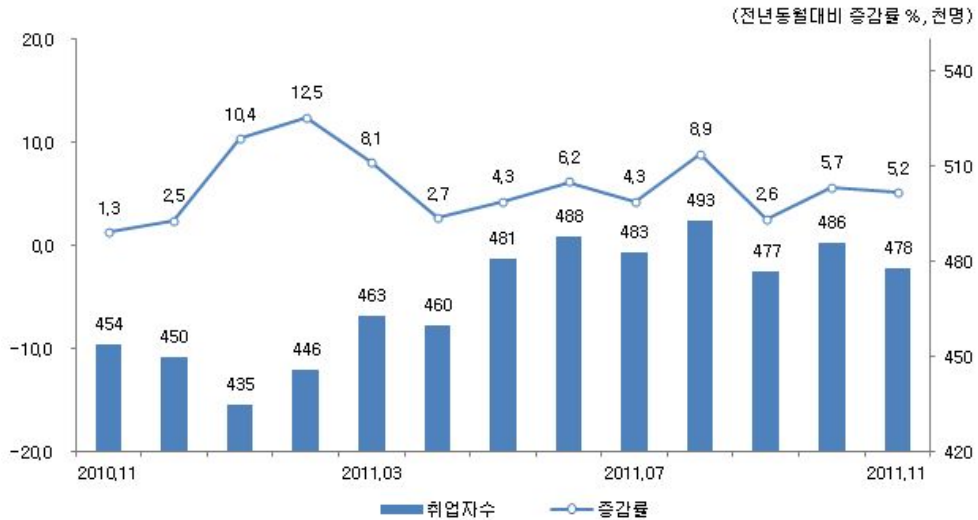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여 1달여만에 2.0%대로 회복
- 서울의 1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2%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2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4천명(3.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1천명(2.1%), 건설업 2천명(0.4%)이 각각 증가
- 제조업 17천명(-3.2%), 도소매·음식숙박업 15천명(-1.1%)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및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21천명(1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천명(1.7%), 관리자·전문가 17천명(1.2%)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67천명(-5.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4천명(-2.5%)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명(-4.3%)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92천명(9.0%)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8천명(-5.6%), 일용근로자는 54천명(-11.8%)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1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6%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여자는 49.9%로 보합세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59.7%)과 0.2%p 차이를 나타냄

■ 서울의 1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11월 실업자는 2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2.4%)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19.7%)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4천명으로 25천명(42.4%)이 증가
-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전국대비(2.9%) 2.1%p 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여자는 3.8%로 1.1%p 상승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2010년=100.0)으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5.3%, 공공서비스 1.3%, 개인서비스 3.1% 각각 상승

■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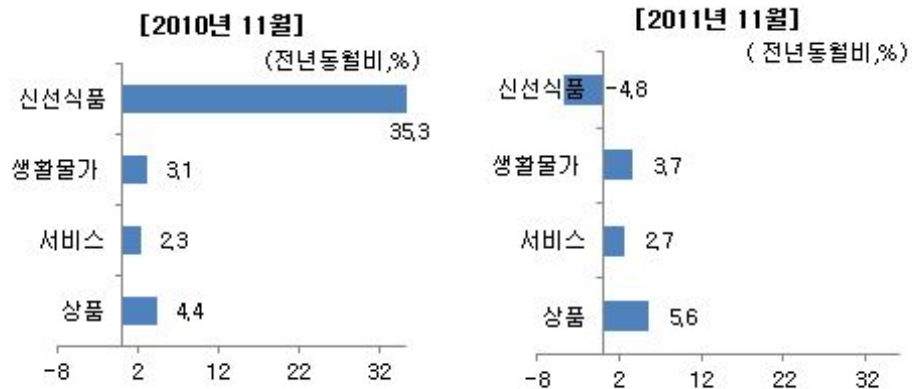
■ 전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2010년=100)로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4.2% 상승, 지난 8월 4.7% 상승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하락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울산이 0.3% 상승,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및 경남은 0.2% 상승, 부산, 대구, 경기 등 5개 시도는 0.1%씩 상승하였고, 서울, 강원과 충남은 변동이 없으며, 광주와 제주 0.1%씩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서울의 신선식품 6개 품목'은 1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공개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 중입니다.
- 또한 10월의 경우 일부품목(배추, 무, 감자, 콩 등)전월에 대한 자료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012년 2월부터 새롭게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매·매·가·격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월만에 하락세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0.1% 하락하여 4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하락한 가운데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보합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7%, 0.9%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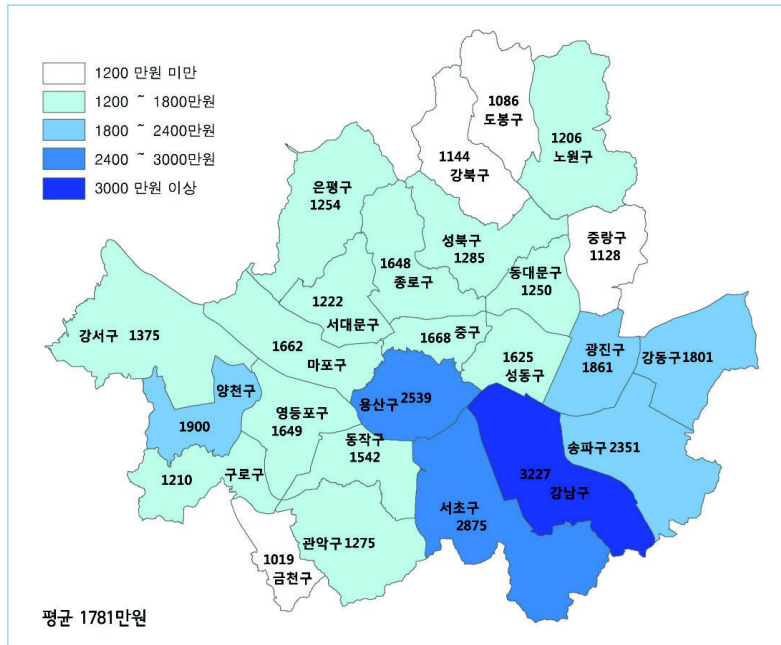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강북구와 노원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종로구는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단독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상승
 - 강북구는 미아뉴타운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 노원구는 급매물이 적체되고 있으나 매수자들의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세 부족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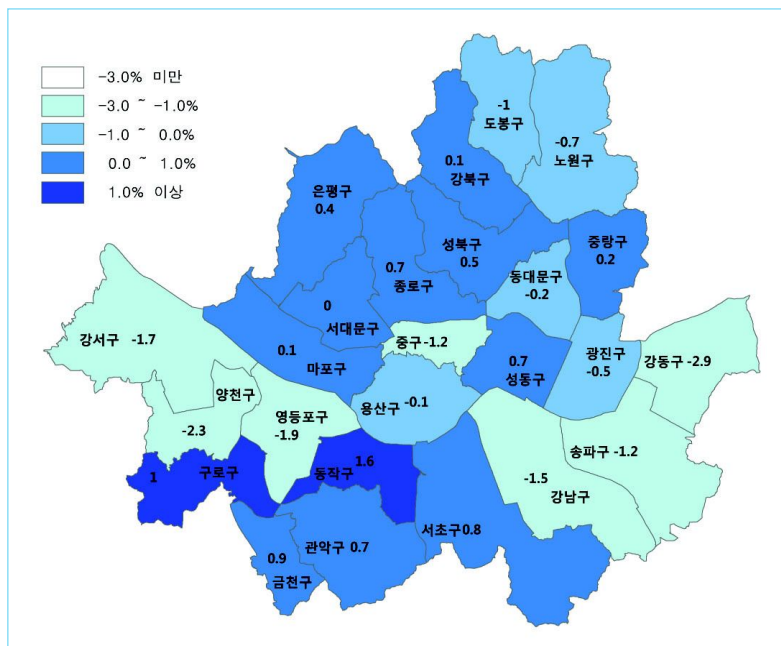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양천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 양천구는 매수자들의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매물적체로 전월대비 0.3% 하락
 - 서초구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부진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81.2만원으로 전월대비(1787.0원)대비 하락하여 9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 모두 전월대비 하락하고 강남구(3,227만원), 서초구(2,875만원), 용산구(2,539만원), 송파구(2,351만원), 양천구(1,900만원), 광진구(1,861만원), 강동구(1,8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9만원), 도봉구(1,086만원), 중랑구(1,128만원), 강북구(1,14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택·전·세·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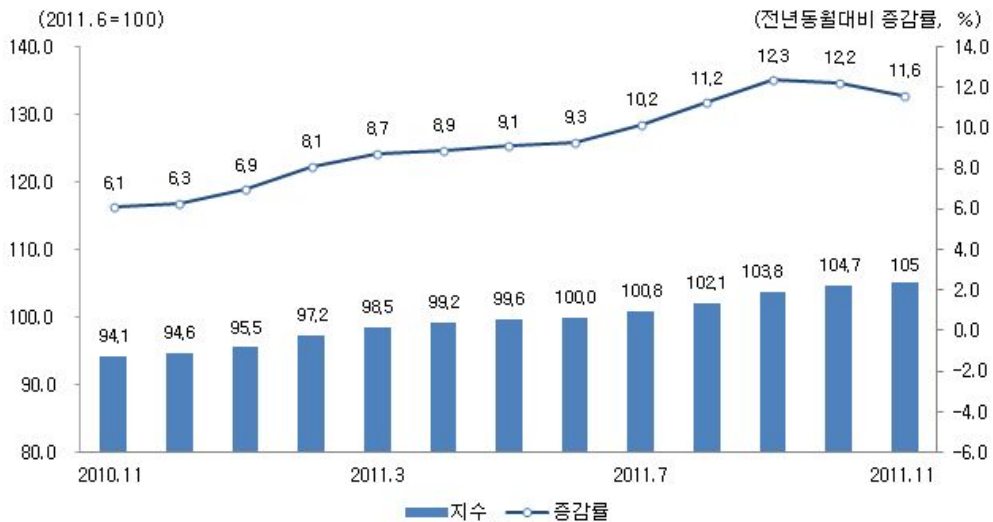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 감소로 상승폭 크게 둔화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큰 폭으로 둔화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2%, 0.1%로 상승폭 크게 둔화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3%,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 축소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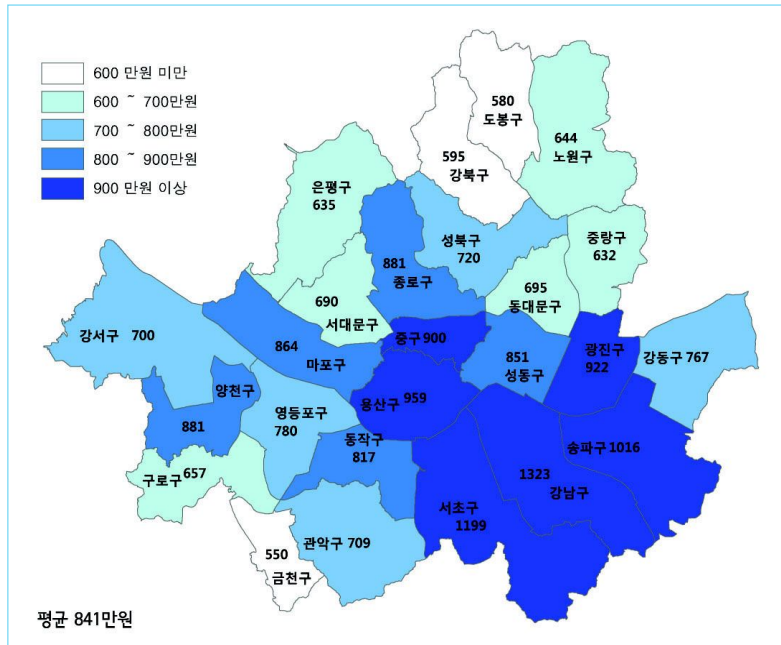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월대비 0.5%를 보이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각각 0.8%, 0.9%로 기록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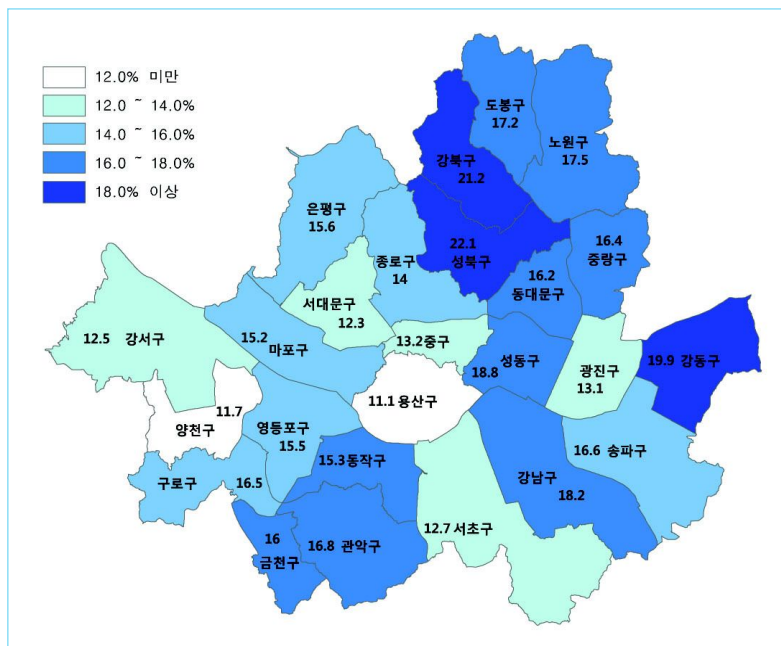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마포구, 은평구 등에서 상승을 보였지만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어 0.3% 상승**
 - 마포구는 전세 재계약 수요 증가로 물량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대비 0.7% 상승
 - 은평구는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세수요가 주춤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 선호와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물량부족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 **강남지역은 강서구, 동작구 등에서 상승하고 구로구 등에서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 강서구는 가양동 등 9호선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직장인 수요,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 상승
 - 동작구는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직장인 수요 등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물량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3% 상승
 - 구로구는 전세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구로동의 기존 낙후된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0.98만원으로 전월대비(840.62만원) 소폭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323만원), 서초구(1,199만원), 송파구(1,016만원), 용산구(959만원), 광진구(922만원), 중구(900만원), 양천구(881만원), 종로구(881만원), 마포구(864만원), 성동구(85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50만원), 도봉구(580만원), 강북구(595만원), 중랑구(63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11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1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50.8%로 전월(50.5%)보다 0.3%p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0.1% 보다 9.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9.5%p)보다 좁혀짐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3.5%, 강남 48.6%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계·대·출 |

10월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10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규모 축소

- 10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0조 2,93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1,129억원(0.92%)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 축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8조 1,513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2조 1,420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9%, 5.0% 증가

■ 10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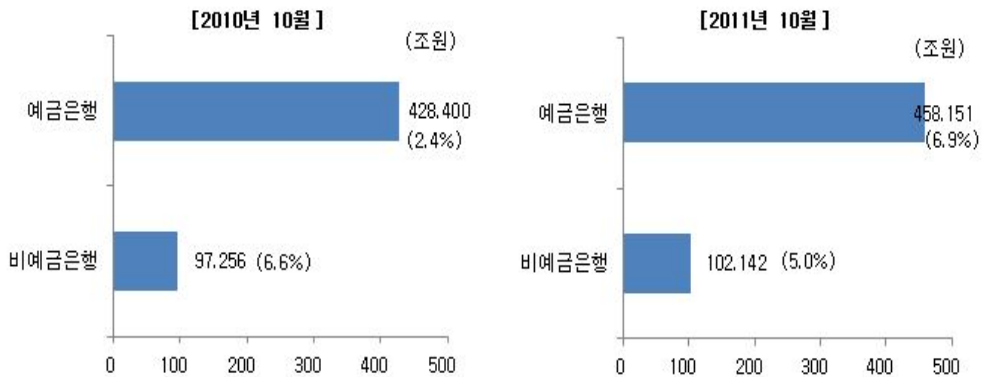
- 10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06조 598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 207억원(1.0%)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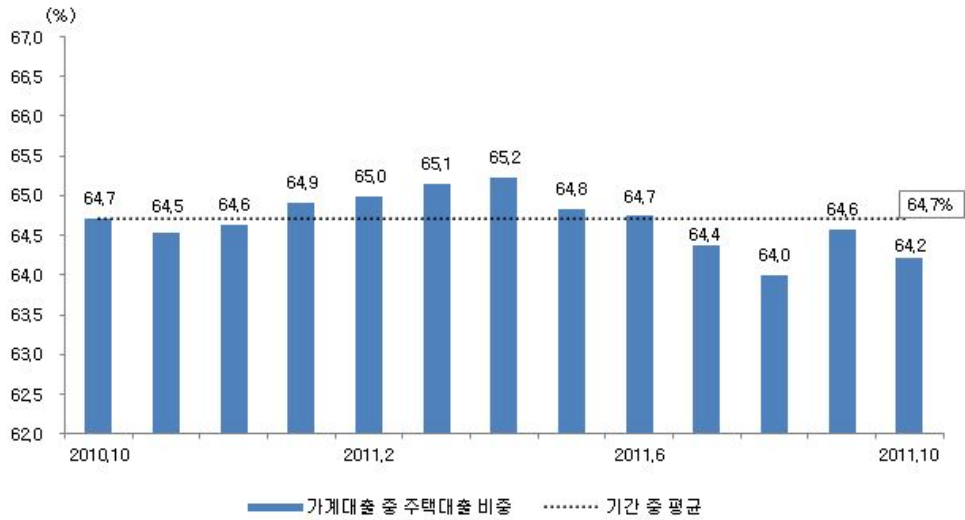
-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527억원으로 전월대비 821억원(0.5%)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836억원(64.2%)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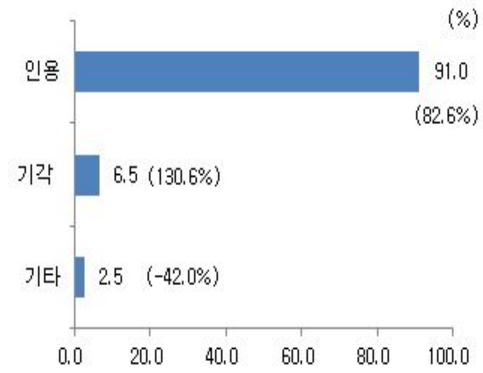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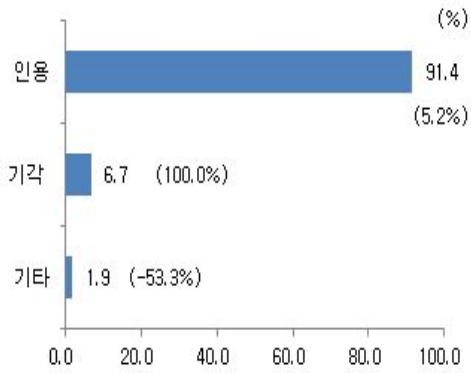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68명으로 전월대비 8.8% 증가,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6.7%로 전월대비 35.3%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6.5%로 전월대비 75.7%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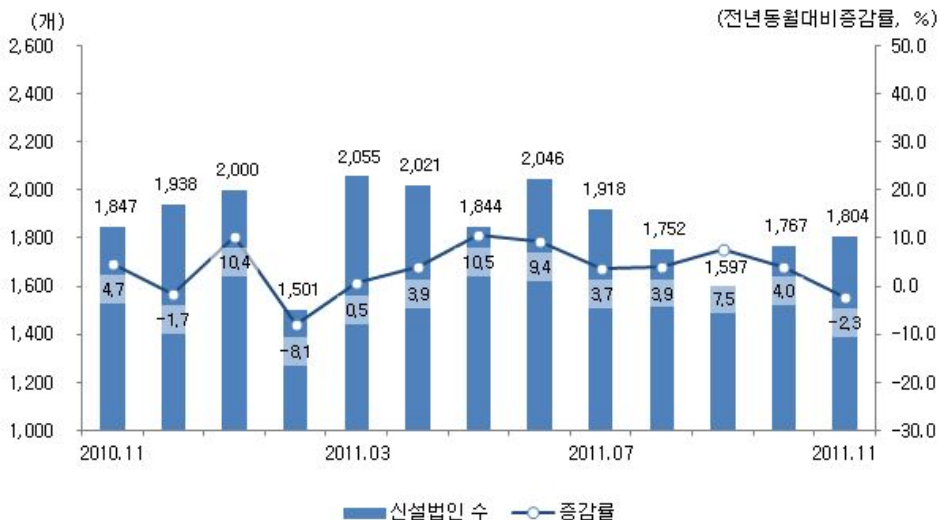
<그림> 11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11월 면책 처리현황

| 신·설·및·부·도·법·인·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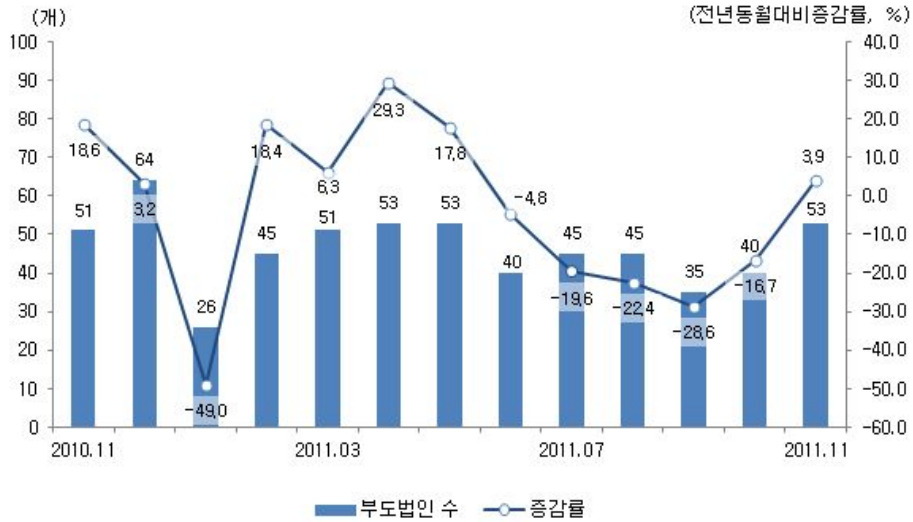
서울의 11월 부도법인 모든 업종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04개로 전월대비 2.1%(37개) 증가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2.3%(43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각각 32.1%(27개), 5.1%(11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0.5%(7개) 감소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업종별로는 모두 부도법인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3개로 전월대비 32.5%(13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3.9%(2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모두 전월대비 88.9%(8개), 20.0%(2개), 5.0%(1개)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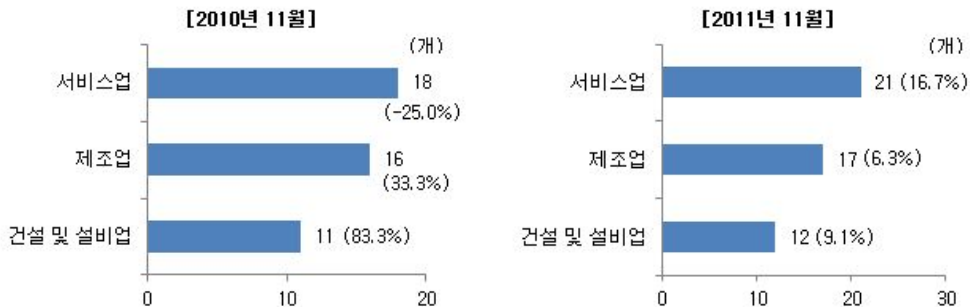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어음부도율 5개월 연속 보합세

- 1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4.0배로 전월(44.2배)보다 하락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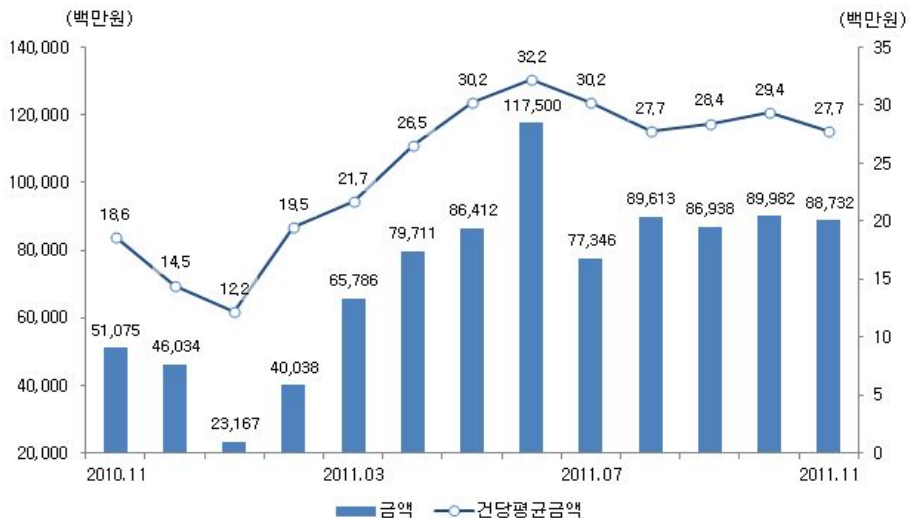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11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소상공인 중심으로 증가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1월 중 3,199건, 88,732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5% 증가한 반면,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각각 1.4%, 5.8% 감소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16.6% 증가하였고, 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각각 73.7%, 48.9%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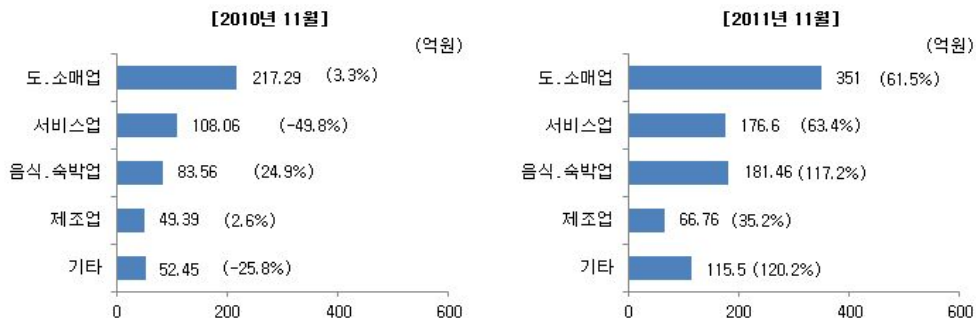
■ 도·소매업 지원 금액 및 건수 비중 전월대비 상승

- 11월 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9.6%로 전월(34.8%)대비 4.8%p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한 지원은 7.5%로 전월(12.4%)대비 4.9%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서비스업종은 23.9%로 전월(23.2%)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종은 23.5%로 전월(24.9%)대비 1.4%p 감소

■ 소상공인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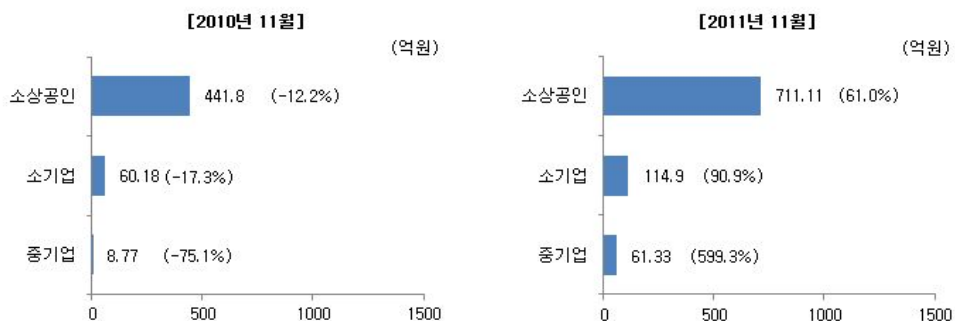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0.1%, 건수기준 92.8%로 전월 대비 각각 1.6%p, 0.8%p 증가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2.9%, 건수기준 4.4%로 전월대비 각각 0.6%p, 0.5%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9%, 건수기준으로는 2.7%로 전월대비 각각 1.1%p, 0.4%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11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1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둔화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증가한 50.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102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한 464.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한 429.5억 달러 기록

■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39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82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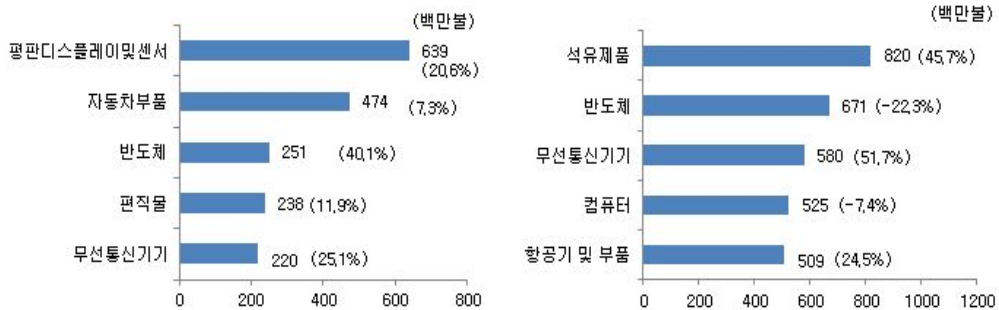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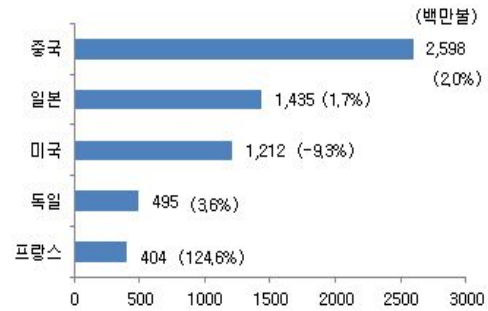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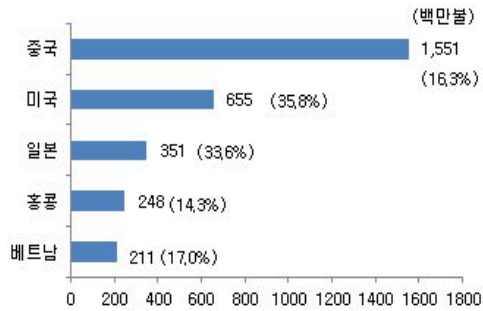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한 1,55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2,593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11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654,666	35.8	합계	1,212,199	-9.3
	1	무선통신기기	110,894	45.2	항공기및부품	256,511	-22.9
	2	자동차부품	102,103	-3.2	육류	49,819	15.9
	3	고무제품	74,293	38	농약및의약품	49,723	71.2
싱가포르		합계	53,900	-7.6	합계	220,561	-15.4
	1	반도체	16,027	-16.8	반도체	96,491	-29.2
	2	전자응용기기	2,604	115.1	컴퓨터	29,542	-15.1
	3	컴퓨터	2,475	-51.4	무선통신기기	13,715	-37.3
페루		합계	5,374	-29.4	합계	4,514	234.2
	1	플라스틱 제품	1,401	741.8	금은및백금	2,798	625.8
	2	합성수지	821	129.5	의류	488	59.4
	3	합성고무	653	-28.5	모직물	217	-
칠레		합계	9,300	-7	합계	64,881	27.1
	1	자동차	3,052	61.2	동제품	35,034	74.9
	2	고무제품	1,489	7.7	제지원료	8,788	-20.6
	3	합성수지	1,377	185.7	육류	7,370	-5.4
인도		합계	84,836	-12.9	합계	193,320	-12
	1	합성고무	22,306	-6.3	석유제품	122,613	-13
	2	자동차부품	11,376	-25	천연섬유사	14,756	30.3
	3	합성수지	9,591	3.9	기초유분	9,089	-21.7